

오스토메이트 들에게도 쾌적한 화장실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



글 야마시타 토오루 山下 亨
(수필가/일본화장실협회 회원)

인공방광 장착환자인 어느 부인에 관한 이야기

한신·아와지 대지진 (1995년 1월) 당시 화장실 문제를 조사하면서 재해시의 화장실대책에 대하여 연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장애자와 정상인들의 화장실 생활 뿐만 아니라 인공방광, 인공항문 장착 환자의 화장실 생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환자를 만난 경우는 없었다. 1999년 6월, 홋카이도 삿포로의 오오도오리공원에서 제8회 요사코미 소란축제(YOSAKOI soran, 소란축제: 전국 각지의 직장이나 학교, 지역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손에 팔랑이를 들고 여러 가지 의상을 입고 시내에서 일본인의 열정과 파워를 느낄 수 있는 박력 만점의 춤을 전개함)가 개최되었다. 총 200만명 정도의 관객을 위하여 장내에 임시로 간이 화장실이 설치되었다. 혼잡한 간이 화장실 사용상황을 취재하고 있었던 때의 일이다. 취재 중인 내 앞에 고령의 부인이 나타났다. 「저는 인공방광을 장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용기에 모아진 소변을 변기에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요」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 노부인의 밝은 말투에 안심하면서도, 만약 인공항문을 장착한 사람이라면 이런 간이 화장실에서 용이하게 뒤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걱정이 되었다.

이런 일이 있고 2년이 지난 금년 3월, 치바현 오스토미협회의 무라야마 아끼코 회장(그 자신도 인공방광을 장착한 환자이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때 인공방광, 인공항문을 장착한 환자의 화장실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즉시 이 분야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약20만 명의 오스토메이트들

일본의 신체장애자는 지체부자유자 (약166만명), 시각장애자(약30만명), 청각, 언어장애자(약35만명), 내부장애자(약62만명)로 나눌 수 있으며 총인원 293만명정도에 달하고 있다. (장애자백서 1998년판) 이 가운데 스토마(인공항문이나 인공방광)를 장착하고 있는 오스토메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장애자들이 보다 쉽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로 일본에서는 '하트빌딩법'과 '복지를 생각하는 마치즈쿠리 조례' 외에도 '교통 배리어후리법' 시행에 따라 휠체어사용자 등 장애자에 대한 「공공시설의 장벽해소」를 지향하는 '배리어후리(Barrier free)'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덕분에 공공 화장실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무실빌딩 곳곳에 장애자 전용 화장실



▲ 오오사카KUSJ 오스토메이트 전용 화장실의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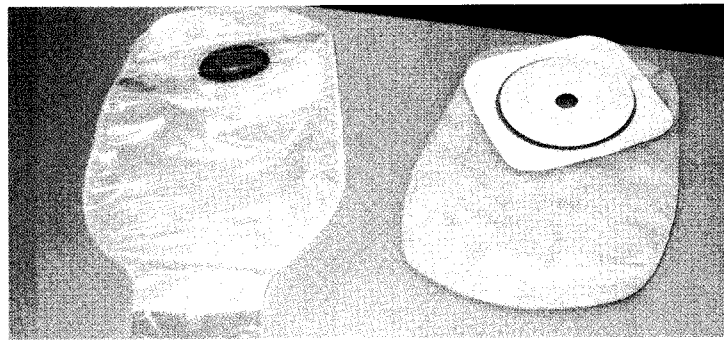
오스토메이트(ostomate)는 인공 방광 및 항문을 장착한 환자 등과 같이 외형상으로는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 장애자를 가리키며, 이 내용을 읽으며 우리나라의 장애인 배려 시설은 너무 형식적인 것만 추구하는 느낌이 든다. (편집자)

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휠체어사용자들은 더 없이 편리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파우치(축분용기나 축노용기)를 상시 장착하고 있는 오스토메이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오스토메이트전용 공공 화장실은 없는 실정이다. (병원에는 있다)

휠체어사용자는 한눈으로도 장애자임을 알 수 있으나, 오스토메이트들은 외견상 그 장애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장애인이다. 이 오스토메이트들이 배설물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거리의 공공화장실로는 극히 불편하다. 진정한 화장실 배리어후리화를 위해서도 오스토메이트들을 위한 배설처리설비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실행할 필요가 있다.

오스토메이트들의 화장실 생활

오스토메이트들은 파우치등의 보장구를 항상 몸에 장착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스킨케어용품, 피부보호제, 접착제, 복대, 가위, 반창고 등도 함께 휴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매일같이 갑작스런 배설의 공포와 배설 후 뒤처리 할 장소를 걱정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평상복을 입고 있는 오스토메이트들은 화장실을 찾아서 (가능한 한 장애자용 화장실을 택하여) 들어간다. 화장실 안에서 파우치의 소변을 변기에 배출하고, 파우치를 물(가능한 한 온수)로 세정한 후 재장착한다. 하반신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어야 할 경우도 있다. 건강한 사람의 항문은 배설감각이나 괄약근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오스토메이트들은 설사를 할 경우나 파우치가 벗겨졌을 때, 스토마에 괄약근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팬티나 그 밖의 다른 속옷도 오물 투성이



▲ 파우치(축분용기·축노용기)

가 되어 버린다. 화장실 안에서 분노나 오물을 버리고 파우치를 세정하여 옷을 갈아입는 것 외에도 더러워진 의복을 깨끗이 빨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일련의 처리과정은 약 1시간이 소요되며 때로는 오물 특유의 냄새가 화장실 안에 가득 차기도 한다. 오스토메이트들은 정상인들의 배설행위와는 전혀 다른 대단히 번거로운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여하튼 현재와 같은 장애자용 화장실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처리작업이 매우 번거롭다.

오스토메이트들에게는 어떠한 화장실이 편리한가?

그러면 오스토메이트들에게 있어서 가장 뒤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일까?

우선 되도록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양변기(온수세정기 부착), 급탕 설비와 온수용 샤워기(복부나 장을 세정한다.), 평면경(스토마나 하반신이 보이는 커다란 거울),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간단한 짐 등을 올려놓는다.), 휴크(장비나 짐, 옷 따위를 건다), 발로 밟는 개폐식 휴지통(오물을 넣는다),

오스토메이트 전용 화장실의 미비는 인권문제!



◀ 온수용 샤워기를 설치한 세면대

오스토메이트 전용 화장실의 보급실태

공공화장실의 오스토메이트 전용화가 어려워만 하다 못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청사 화장실 만이라도 설비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서술한 오스토미 협회의 무라야마 아끼코회장과 그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그녀가 살고 있는 나리시노시는 시청 청사내에 있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1998년 5월에 오스토메이트 전용 화장실로 개수했다. 요컨대 세면기에 핸드샤워를 설치하고 평면경, 선반, 후크 등을 오스토메이트 전용 화장실에 설치하였으며 오스토메이트 전용 화장실이라는 표지판도 설치하였다. 이것이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이루어진 시도였다. 그 후 치바현의 여러 청사에서라도 같은 식의 개수가 시행되었 으며, 계속해서 치바현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들의 참가도 서서히 늘어 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지난 4월 오오사카에 문을 연 유니버셜 스튜디오 저팬(USJ)의 출입구 부근에 위치한 화장실지역 일각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화장실 문 앞에 오스토메이트 전용(OSTOMY DISPOAL)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몹시 감격한 마음에 화장실 안을 조사해 보았으나 화장실내의 설비는 온수급수설비도 없으며 발로 밟아 여는 개폐식

화물대 또는 웨건(의복 교환시 사용), 환기설비(파우치 교환시의 악취를 제거 한다)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더러워진 하반신을 씻기 위한 욕조(온수가 나옴)나 온수 샤워실도 필요하다. 오스토메이트들은 이러한 시설이 잘 정비된 오스토메이트용 전용화장실의 신설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의 장애인용 화장실에는 선반도, 후크도, 온수용 샤워 시설도 없다. 게다가 만약 오스토메이트가 1시간 정도나 화장실을 사용 하게 된다면 화장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휠체어사용자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된다.

어디서든 반드시 몇 명의 오스토메이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공공화장실은 물론이고 오피스 빌딩내의 화장실도 오스토메이트 전용으로 화장실 설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휴지통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몹시 불편하고 비위생적으로 보여서 오스토메이트들에게 만족할 만한 화장실은 아니었다. 연간 천만명정도의 관객이 방문하는 유원지에는 반드시 오스토메이트전용 화장실의 완비가 요구된다.

오스토메이트전용 화장실의 미비는 인권문제다

장애자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며, 게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화장실 설비조차 불편하다면, 일상 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오스토메이트들의 사회활동참여 기회는 크게 제한 받고 있다고 할수 있다.

어디서든 반드시 몇 명의 오스토메이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공공화장실은 물론이고 오피스 빌딩내의 화장실도 오스토메이트 전용으로 화장실 설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오스토메이트들을 위한 화장실 개선이야말로 인권상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노동안전위생법상에서도 노동자생활의 권리로서 오스토메이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의 완비는 필요하다. 오스토메이트전용 화장실의 신설이 무리라면 하다못해 장애자용 화장실에 급탕설비와 온수용샤워기, 흑크, 발로 밟는 개폐식 휴지통만이라도 설치되어야 한다. 기성제품으로도 그런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십만엔(₩)정도의 투자만으로 설비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노력조차 할 수 없다면 장애자를 위한 배리어후리화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 나리시노시 시청 본청사 내의 오스토메이트 전용 화장실내부
/사진 왼쪽의 세면기아래에 급수설비가 있다. 왼쪽에 흑크가 있다.
/사진 왼쪽 아래가 휴지통, 오른쪽 아래가 의복교환용 화물대로서 그 위에도 선반이 있다. 흑크도 2개 장소에 부착되어 있다



▲ 화장실문의 표지판 /대를 심볼화한 오스토메이트 표시